

2024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4년 6월 26일(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김종화 위원
이수형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종렬 부총재보 김 응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오금화 외자운용원장
백무열 법규제도실장 최용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9호 -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함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에 대한 주요국 비교 등을 통한 평가, 가계 및 자영업자 취약부문의 연체율 변동 특징,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점검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또한 최근 환율 상승기의 주요 특징, 주요국의 바젤III 도입 현황 등 금융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주요 관심 이슈들도 분석하여 보고서에 함께 수록하였음.

다음으로 금번 보고서에서 담고자 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최근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에 금융기관과 대외부문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및 기업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취약부문의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음. 둘째, 금융기관의 자본과 총당금 적립 수준, 유동성 대응능력 등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대출 연체율 및 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관리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음.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들 뿐만 아니라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등 중장기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의 조기 식별 및 경보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6월 1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 현황,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부동산PF 부실 우려,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저하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러 금융안정 이슈들을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기업 부문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기업의 이자보상배율 하락 요인을 영업이익 감소와 이자비용 증가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평가 및 시사점 부분에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책을 균형있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현재 연체율 상승이 긴축 사이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안정 측면의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하여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주택매매가격의 동향을 서술할 때 보다 균형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와 관련하여 정부부문의 레버리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관 및 종합평가 부분의 핵심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더욱 간결하게 정리하고, 보고서 전반의 챕터 구성과 그림·표·주석 번호 등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밖에 여러 위원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설정에 대한 근거 명시, 금융안정보고서의 외환관련 분석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일부 금번 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추후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연구주제로 분석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안) (생략)